

## 과부의 심정으로 기도하자

성경말씀: 눅18:1-8

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다. 배워야 산다. 어디서 무엇으로 배울까?

어떤 정치인, “배움은 사람들을 읽음으로써 그것도 여러 사람을 읽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.”

그래서 다들 위인전을 읽는다. 자녀들이 위인들의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.

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이다. 어디서 읽을까? 성경이 필요하다.

누가복음: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대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.

대언자, 정치가, 바리새인, 서기관, 어린아이, 세리, 부자와 거지, 과부 등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.

### 과부

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보다 더 많이 과부에 대해 말한다.

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과부와 고아에 대해 특별 명령을 주셨다(출22:22-24; 신14:28-29 등).

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오랫동안 열강의 각축장, 과부나 고아 같은 약자의 생활이 심히 궁핍하였다. 초대 교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(행6:1; 딤후5:3-10; 약1:27)

그 당시 법정의 상황: 법정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텐트를 치고 순회하는 법정이다.

법이 아니라 재판관이 의제를 세운다. 재판관 주변에 조수들이 진을 치고 있다.

누구나 밖에서 볼 수 있지만 허락받은 사람만 안으로 들어가 자기 사정을 가지고 재판받을 수 있다.

그러므로 뇌물이 있어야 했다.

과부 여인의 방해물: 1. 율법 하에서 여자(사람 수에도 안 들어감), 2. 남편이 없으니 함께 설 수 없다. 3. 돈이 없다. 빵이 없다. 우리는 어떤가?

예수님의 말씀: “끈질기게 기도해라.” ★★★

### 기도는 낙심과 대비가 된다(1절)

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. ‘faint’라는 말은 영과 혼과 몸에서 기운이 빠지는 것을 뜻한다.

그래서 중간에서 그만두고 싶은 것이 낙심한다는 말이다.

18:1은 17:37 다음에 나온다.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몰려든다. 그러면 낙심하게 된다.

사회는 죽은 시체와 같아서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한다. 낙심하기 쉽다.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. ★★★

항상 기도하라. 쉬지 말고 기도하라(살전5:17). 주문처럼 외우라는 것이 아니다(마6:5-15).

기도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게 해야 한다. 늘 ‘주여!’ 하고 기도해야 한다.

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열망이다. 말이 없어도 하는 기도가 있다. ★★★

그러므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마음에서 거룩한 열망을 품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다.

요즘 우리 성도들이 낙심 중에 있음을 본다. 목사의 무력함을 본다. ★★★

처음의 열정이 없다. 모임을 등한히 하는 데서 나타난다.

당신은 기도하는가? 낙심하는가? ★★★

### 과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대비가 된다(2-5절)

하나님의 백성이 과부와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부가 하나님의 백성과 같다. ★★★

과부는 재판관에게 낯선 자,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

과부는 재판관에게 나갈 방도가 없으나 우리는 언제든지 나간다(엡2:18; 요일5:14-15).

과부는 도와 줄 자가 없다. 텐트 주변만 돌 뿐이다. 우리에게는 변호자가 있다(요일2:1).

우리에게는 재판관이 주신 성경 말씀의 약속들이 있다. 과부는 없다.

우리에게는 밤낮으로 신음하는 성령님이 있다(롬8:26-27). 과부는 없다.

과부는 법정에 가지만 우리는 은혜의 왕좌에 간다(히4:14-16).

즉 이 가련한 과부가 사악한 재판관으로부터 소원을 성취하였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공홀 많은 그분에게서 당연히 더 큰 소원들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다. ★★★

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이 과부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.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. ★★★

### 재판관은 하나님과 대비가 된다(6-8절)

재판관은 뇌물을 받고야 과부의 청원을 검토한다.

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언제나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.

재판관은 또 와서 자기를 괴롭힐까 봐 할 수 없이 청원을 들어주었다.

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들어 주신다. 늘 들어줄 태세가 되어 있다.

하나님은 속히 들어주시려고 한다(8절).

그런데도 응답이 없으면 어찌할까?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응답이 없다. 롬8:28이 틀린 말일까? 아니다! 성경의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. 가장 좋은 때에 자신의 뜻대로 응답하신다.

그래서 성경을 읽는다(롬15:4).

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경우

막7:24-30, 수로보니게 여인, 여기도 과부 여인인 것 같다.

종종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 내용을 판단하신다. 개라니?

1.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? 2. 정말로 우리가 무력함을 알고 있는가? 3. 기도에서 이기심을 배제하고 있는가?(약4:1-3) 4. 무응답이 영원하지는 않다. 5.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을 강화시킨다.

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: 단3:16-18, 사드락, 메삭, 아벳느고,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★★★

**말세에는 믿음을 찾기가 어렵다(8절)**

눅17:22-37 다음에 이 구절이 나온다.

기도하는 것을 믿음과 비교한다. 노아 당시 8명 구원(26절), 소돔에서는 4명 구원(29절) ★★★

**무엇을 기도할까?**

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? 왜 한국 사람인가? 왜 이 교회에 왔는가?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. ★★★

대전제: 마6:22

1. 우리말 킹제임스 성경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우리 민족에게 들어가도록
2. 바른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도록
3. 곳곳에서 예수님의 바른 교회가 일어나도록: 바른 말씀, 바른 구원, 바른 교회, 바른 사회
4.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축이 되도록
5.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이 세워지도록: 강한 지체들의 몫
6. 교회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도록: 목사와 교사와 아이들
7. 가정과 개인의 필요: 생계, 질병, 재정, 아이들 교육, 직장, 결혼, 이혼

**결론**

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.

숨쉬듯 자연스럽게 기도하자. '주여, 도와주십시오!'(눅17:9:14의 죄인)

시편 23편을 기도로 올려라.

부모처럼 우리 하나님은 들어 주신다. 확신을 갖자.

끈질기게 기도하자. ★★★